



문서번호: 25-01-퇴진특위-0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복남)

제 목: [세줄논평] 수장도 항복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전송일자: 2025. 1. 10.(금)

전송매수: 총 1매

### [세줄논평]

## 수장도 항복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1.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오늘(10일) 사직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가 위법이었음을, 그리고 추후 예정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대통령경호처의 수장이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2.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외곽구역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에게, 경찰청은 202경비단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3. 이제 윤석열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대통령경호처장이 사직한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치가 절대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내린 무죄 선고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바로 ‘정의’ 입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였다. 경호처 직원들 역시 어떠한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말고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